

다양성 있는 사회를 선도하는

'창조적 세계시민' 육성의 세계적 거점으로

건학 정신을 바탕으로 한 도전으로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 얻어

'인간교육의 최고 학부이어라' '새로운 대문화 건설의 요람이어라' '인류의 평화를 지키는 요새이어라' 이와 같은 건학 정신 아래 창립된 소카대학교는 2021년에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창립 50주년, 또 앞으로 10년을 향해 대학의 그랜드 디자인(장대한 구상)을 책정했습니다.



소카대학교 총장 바바 요시히사

또한 2014년 슈퍼글로벌대학 창성지원에 채택되어 글로벌 모빌리티를 비롯한 네 가지 계획을 실천. 국제사회를 창조적으로 개척해가는 지성(intellectual capability)과 인성(strength of character)을 겸비한 '창조적 세계시민' 육성에 힘써왔습니다. 그 성과로서 2018년 2월에 발표한 중간평가에서는 최고 평가인 S평가를 획득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해외 국내 대학의 랭킹에 올랐습니다.

각국과 맺은 깊은 협력관계로

더한층의 국제 공헌을 지향하다

소카대학교 슈퍼글로벌대학 창성지원사업의 근거에는 '다양성'이라는 요인이 있어 교내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성이 착실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당초보다 교류대학 숫자가 세계 62개국·지역 225개 대학(2020년 5월 현재)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313명에서 2019년에는 878명으로 늘었습니다. 본교의 해외사무소를 통해 현지에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거나 2017년부터 참가한 난민고등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한 명의 난민 학생을 받아들이는 등 적극적으로 유학생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이나 국제학생기숙사, 취직지원 등의 지원에도 힘을 쏟아 외국인 학생들이 더욱 학습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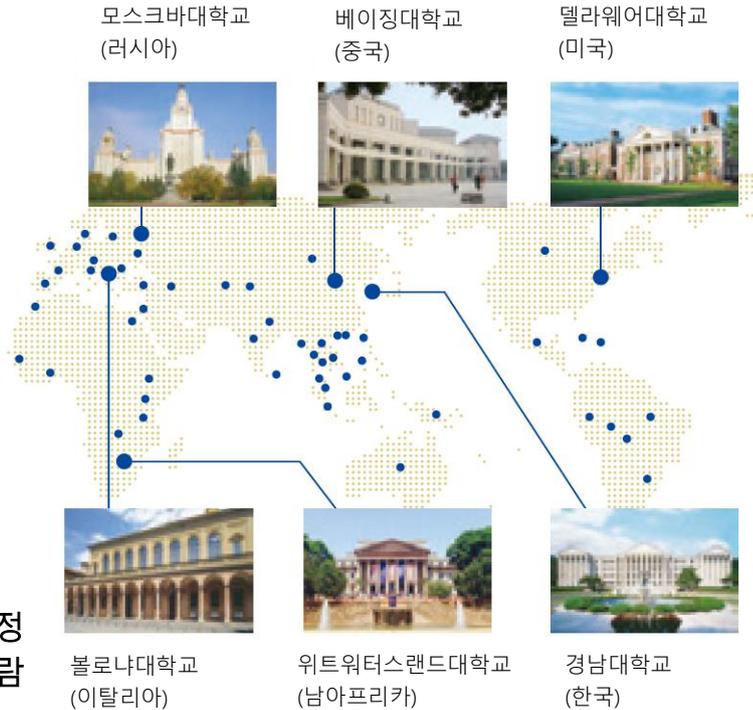


한편 일본인 학생의 유학 파견은 557명에서 77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커리큘럼과 연동한 유학프로그램이나 학점 이수가 가능한 해외 인턴십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새롭게 개발되었습니다. 4년 동안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고 졸업하는 English Medium Program 등 캠퍼스 내의 글로벌화로 인해 소카대는 어디에서도 세계로 연결될 수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타 문화 이해가 깊어지고 해외에서 공부해보고 싶다는 의욕이 향상됨으로써 학생의 커리어 형성에 크게 기여하며, 졸업생은 경제 활동과 연구 분야 등에서 전 세계적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세계 **62**
 개국·지역
225
 개 대학의
 네트워크
 (2020년 5월 현재)



◀◀◀
 교류협정
 대학일람



그 밖에 본교는 아프리카와 교육 교류나 공동 연구에도 힘을 쏟아 왔습니다. 아프리카의 여러 대학과 맺은 교류는 9개국 13개 대학에 이르며, 그 중에서 본교를 비롯한 국내의 네 개 기관과 아프리카 여러 대학과의 국제공동연구가 지구규모과 제대응 국제과학기술협력 프로그램(SATREPS)에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일본과 남아시아의 학술 교류 촉진을 위해 '남아시아연구센터'를 개설했습니다. 본 센터를 축으로 인도를 중심으로 한 여러 대학과 공동으로 강연회나 국제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소카대학교 SDGs추진센터'도 설립하여 SDGs를 위한 도전이나 학생의 활약이 더한층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위기 속에 온라인으로 해외 대학과 교류하는 COIL형 교육프로그램과 자국에 있으면서 해외 대학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온라인유학 등 새로운 배움의 형태를 모색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창조적 세계시민을 육성해가겠습니다.

QS아시아대학 랭킹 2020

외국 국적 교원 지표 외국 파견 교환유학생 지표

국내 **4위**

국내 **8위**



세계대학 랭킹 일본판 2020

국제성 분야

국내 **6위**



대학 임팩트 랭킹 2019

세계 **101-200위**

(국내 4위 상당)



목표16
평화·공정
세계 **61위**



소카대학교 온라인 교류

다양성 있는 글로벌 캠퍼스

한국과 타이 등 해외 현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입시설명회를 올해는 온라인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국제과에서는 유학생을 위한 '가상창구'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직원과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인도 등의 교류 대학과 온라인으로 학생 교류 이벤트도 개최, 인턴십 실시도 시작하였습니다.

해외 식자들에 의한 강연회와 심포지엄

해외의 저명인을 초대하여 온라인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사에 의한 강연회나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의 베아트릭스 핀 사무국장에 의한 강연회, 유엔 UNHCR협회에 의한 난민문제에 관한 영상 상영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창립 5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써 평화와 인권을 주제로 한 '가치창조×SDGs' 워크를 개최. 각계의 식자를 초대한 기초강연과 심포지엄, 학생 주체의 유스세션과 전시를 일주일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국제교양학부 학부장 인터뷰

영어로 배우는 리버럴 아츠와 타 문화 이해

국제교양학부에서는 보편적인 교양과 풍부한 인간성을 겸비한 글로벌 리더 육성을 지향합니다.

글로벌 리더에게 영어 능력은 반드시 필요한 능력입니다.

국제교양학부 수업은 모두 영어로 이루어지는 액티브 러닝입니다. 1학년 때 집중적으로 영어의 기초 학습능력을 습득

하고 2학년 봄학기에는 전원이 유학을 갑니다. 또한 글로벌 리더에게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친 넓은 시야로 타 문화

를 깊이 이해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4년에 걸쳐 역사·사회·문화, 정치·국제관계, 경제·경영 이렇게 세 분야의 수업을 폭넓게 이수합니다. 다양한 나라의 교수나 반 친구들과 이루어지는 액티브 러닝, 크리티컬 라이팅, 디스커션을 통해 글로벌적인 사고방식을 익힙니다.

현재 교수진은 8개국 출신의 외국인 교원이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도 많은 유학생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환경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성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할 수 없는 세계 공통의 과제가 있는 현재 상황은 국제 협력의 중요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러한 때야말로 타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가 필요합니다. 영어 능력뿐 아니라 습득한 교양을 바탕으로 최선의 판단을 내려 세계 규모의 과제를 해결해내는 인재를 육성해가겠습니다.



국제교양학부 학부장
로렌스 맥도널드